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도영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Young Suk, Do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self-directed learning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 The participants was 107 students in D city.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3, 2017 to April 21 using a questionnair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WIN 22.0 using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level of communication was average of 3.40 point out, problem solving was average of 3.40 point out, self-directed learning was average of 3.23 point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self-directed learning have been shown to be Choice motive. self-directed learn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blem solving ability($r = .66$, $p < .001$), communication($r = .74$, $p < .001$). communi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blem solving ability($r = .73$, $p < .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gression fit F value was 1.88,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 = .034$),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35%. Choice motive was the greatest predictor of self-directed learning. **Conclusion** :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n academic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that can improve the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the level of the target person.

Key word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은 학업적 측면과 함께 다양한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사회관계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제들을 대처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학습습관으로 인해 자기주도성이 필요한 대학에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전공영역 선택에 있어 타인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높다[2]. 하지만, 이제는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여 자료를 가공, 활용할 수 있는 있는 학습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시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간호교육은 간호학생들이 습득한 이론과 지식을 임상 실무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여 건강문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3].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로[4],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맥락에서 언어적, 비언어적인 말을 정확히 해석하고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이다[5].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생애능력 중 하나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주요한 활동이다[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동안 간호사와 타 전문직들간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다른 직종과의 문제 해결, 환자 및 보호자와의 치료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량이다[4]. 간호대학생의 낮은 의사소통능력은 학업성취도와 전공에 대한 흥미, 학업능력의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환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간호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5].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타 전문직들과의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구성원 간의 관계 향상을 도모하여 임상실무에서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기여한다[6]. 그러므로 간호사를 배출하는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하여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임상실무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 수행 중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은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법들이 간호교육현장에서 시도되었고,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7]. 따라서 간호학생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 목표에 따라 적용,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타인의 도움 여부에 관계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욕구에 따라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8]. 간호사는 급속한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료지식의 발전과 더불어 수행할 직무의 범위와 폭이 넓게 확장되므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실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스스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9].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개인의 생애발달에 요구되는 핵심능력이지만[2], 국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10], 학습유형[11]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생애능력인 의사소통과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유형과 학습태도[12], 학업성취도[9]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애능력인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애능력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2]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들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정도를 확인한다.
- 3)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학과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110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이 중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3부를 제외한 총 107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의 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0.80로 설정한 후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확인한 결과 97명이었으며,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수는 110명으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는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2]에서 수행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에서 개발된 대학생용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해석능력 14문항, 역할수행능력 14문항, 자기제시능력 7문항, 목표설정능력 7문항, 메시지 전환능력 7문항 등 5개 영역의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1점)에서 매우 자주(5점)의 5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49점부터 최고 2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EDI[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KEDI[2]에서 수행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에서 개발된 대학생용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 명료화 5문항, 원인분석 10문항, 대안개발 10문항, 계획 및 실행 10문항, 수행평가 10문항 등 5개 영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1점)에서 매우 자주(5점)의 5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45점부터 최고 2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EDI[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정도는 KEDI[2]에서 수행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에서 개발된 대학생용 의

사소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습 계획 20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평가 10문항 등 5개 영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1점)에서 매우 자주(5점)의 5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45점부터 최고 2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EDI[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4. 자료 수집 및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광역시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IRB No. 2017-002-011)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2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 110명을 편의추출하였다. 이 중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3부를 제외한 107부를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연구 참여의 거부 및 중단 가능성, 자료 수집과 자료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정도는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 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를 D광역시 D대학의 간호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확대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07명의 연구대상자 중 25세 미만은 95명(88.8%)이고, 여학생이 97명(90.7%)으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스스로 결정이 65명(60.7%)이고, 교우관계는 좋음이 56명(52.3%)이었고, 전공만족도, 이론만족도에서는 만족이 각각 69명(64.5%), 82명(76.6%)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실습참여태도는 77명(72%)로 나타났다(Table 1).

2.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40(± 0.33)점이었고, 가장 높은 영역은 해석능력으로 평균 3.72(± 0.36)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목표설정으로 2.78(± 0.54)점이었다.

문제해결능력은 평균 3.35(± 0.39)점으로 가장 높은 영역은 문제명료화 영역으로 평균 3.73(± 0.53)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대안개발로 3.12(± 0.49)점이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평균 3.23(± 0.37)점으로 가장 높은 영역은 학습실행으로 평균 3.40(± 0.38)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학습계획으로 2.98(± 0.46)점이었다(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107)

Variable	Categories	n	%
Age	< 25	95	88.8
	25 ~ 29	4	3.7
	30 <	8	7.5
Gender	female	97	90.7
	male	10	9.3
Choice motive	Self	65	60.7
	Others	11	10.3
	Self + others	31	29
Friendship	Difficult	4	3.7
	Good	56	52.3
	Very good	47	43.9
Major's satisfaction	Satisfied	69	64.5
	Moderate	35	32.7
Theoretical satisfaction	Satisfied	65	61.3
	Moderate	37	34.9
	Unsatisfied	4	3.8
Practical satisfaction	Satisfied	82	76.6
	moderate	24	22.4
	Unsatisfied	1	0.9
Attitude to participate in practice	Active	77	72
	Passive	30	28

Table 2. The level of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 107)

Variable	Categories	Mean \pm SD	Min ~ Max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3.72 \pm 0.36	2.86 ~ 4.71
	Ability to perform roles	3.38 \pm 0.41	2.14 ~ 4.43
	Self-presentation ability	3.50 \pm 0.55	2.29 ~ 5.00
	Ability to set goals	2.78 \pm 0.54	1.71 ~ 4.29
	Message conversion capability	3.62 \pm 0.45	2.14 ~ 4.71
	Total	3.40 \pm 0.33	2.64 ~ 4.34
Problem solving ability	Clarify problem	3.73 \pm 0.53	2.00 ~ 5.00
	Cause analysis	3.19 \pm 0.44	2.40 ~ 4.50
	Alternative development	3.50 \pm 0.48	2.50 ~ 4.80
	Construct & execution	3.12 \pm 0.49	1.80 ~ 4.50
	Performance evaluation	3.22 \pm 0.49	1.70 ~ 4.50
	Total	3.35 \pm 0.39	2.46 ~ 4.50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plan	2.98 \pm 0.46	1.50 ~ 4.15
	Learning practice	3.40 \pm 0.38	2.40 ~ 4.73
	Learning evaluation	3.30 \pm 0.44	2.20 ~ 5.00
	Total	3.23 \pm 0.37	2.36 ~ 4.3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성별,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교우관계와 실습참여 태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전공만족도, 이론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성별($t=0.43$, $p=.006$), 교우관계($F=4.60$, $p=.012$), 전공 만족도($F=4.81$, $p=.010$), 이론만족도($F=4.60$, $p=.010$), 실습만족도($F=4.81$, $p=.010$), 실습참여태도($t=7.30$, $p=.008$), 문제해결능력은 성별($t=7.30$, $p=.008$), 교우관계($F=3.93$, $p=.023$), 실습참여태도($t=8.36$,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성별($t=7.30$, $p=.008$), 전공선택동기($F=4.09$, $p=.019$), 전공만족도($F=6.10$, $p=.003$), 이론만족도($F=7.34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4.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문제해결능력($r=.66$, $p<.001$), 의사소통능력($r=.7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의사소통능력($r=.7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5.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이론만족도, 실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위한 Durbin-Watson값은 1.80으로 독립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며, VIF값은 1.122~2.306으로 낮아 독립변수 간의 다중

Table 3. Difference in the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1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Female	3.40±0.34	0.43	3.33±0.37	7.30	3.23±0.37	0.49
	Male	3.44±0.30	(.006)	3.57±0.48	(.008)	3.25±0.38	(.826)
Choice motive	Self	3.41±0.35	2.77 (.067)	3.35±0.37	3.37 (.069)	3.30±0.34	4.09 (.019)
	Others	3.24±0.34		3.21±0.52		2.98±0.43	
	Self + others	3.44±0.28		3.40±0.37		3.23±0.37	
Friendship	Difficult	3.50±0.29	4.60 (.012)	3.13±0.65	3.93 (.023)	2.91±0.60	2.15 (.122)
	Good	3.34±0.31		3.27±0.40		3.21±0.37	
	Very good	3.50±0.33		3.46±0.32		3.28±0.33	
Major's satisfaction	Satisfied	3.45±0.33	4.81 (.010)	3.43±0.37	4.58 (.012)	3.09±0.42	6.10 (.003)
	Moderate	3.31±0.31		3.12±0.39		2.92±0.38	
Theoretical satisfaction	Satisfied	3.48±0.33	4.60 (.012)	3.45±0.36	6.52 (.002)	3.33±0.33	7.34 (.001)
	Moderate	3.28±0.31		3.18±0.39		3.06±0.36	
	Unsatisfied	3.33±0.39		3.34±0.39		3.12±0.51	
Practical satisfaction	Satisfied	3.45±0.32	4.81 (.010)	3.42±0.37	5.60 (.005)	3.28±0.36	4.41 (.014)
	moderate	3.24±0.31		3.13±0.37		3.04±0.35	
Attitude to participate in practice	Active	3.45±0.33	7.30	3.42±0.38	8.36	3.27±0.37	3.64
	Passive	3.26±0.30	(.008)	3.18±0.35	(.005)	3.12±0.35	(.059)

Table 4. Correlation Among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 107)

Variabl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	.66(< .001)	.74(< .001)
Problem solving ability		1	.73(< .001)
Communication ability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 107)

Variable	B	SE	β	t	p
Choice motive	.06	.04	.15	1.46	.017
Major's satisfaction	.05	.09	.08	-0.59	.242
Theoretical satisfaction	.06	.08	.13	-0.68	.270
Practical satisfaction	.12	.09	.16	-1.12	.720
Adjusted R ² = .35, F=1.88, p=.034					
VIF=1.122~2.306, Durbin-Watson=1.80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선택 동기($\beta=.154$, $p=.017$)이고, 이 변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를 확인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에 대한 전공 만족도는 97.2%, 이론 만족도는 96.2%, 실습 만족도는 99.0%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Kwak[6]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며, 연구대상자인 2학년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임상실습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나, 교내 실습을 통해 간호사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고취된 결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적극적인 실습태도가 72%로 과반수 이상으로 확인되어, 학생들

이 임상실습현장에서 적극적인 태도에 실습을 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0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와 대상자를 사용한 Lee[13]의 연구에서는 평균 3.61점 보다는 낮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세부 영역별로는 본 연구에서는 해석능력이 평균 3.72점으로 가장 높은 영역이었으나, Lee[13]의 연구에서는 정보수집능력이 평균 3.96점으로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나 세부영역별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Hur[14]의 도구를 사용한 Kwak[6] 등의 연구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의 평균은 3.67점, Kim과 Lee[15]의 연구에서는 3.07점으로 본 연구 보다 높거나 낮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사용한 연구 도구가 다르기도 하였으나,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보통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은 임상실무 현장에서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단기간에 향상될 수 없으므로, 1학년 때 부터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능력은 정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35점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개발 시 KEDI[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의 평균은 3.10점으로 본 연구에서 다소 높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소에 따라 문제명료화의 평균 3.73점이 가장 높았고, 계획/실행이 3.12점으로 가장 낮았던 반면, KEDI[2]연구에서는 수행평가 평균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원인분석 평균이 2.9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명료화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았으나, 원인을 분석하고 계획과 실행하는 능력이 낮았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간호대학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을 체계적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3점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개발 시 KEDI[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평균은 3.21점으로 본 연구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영역에 따라 학습평가의 평균이 5점, 학습실행 평균 4.73점, 학습계획 평균 4.15점 순으로 나타났고, KEDI[2]의 연구에서는 학습평가의 평균이 3.32점, 학습실행 평균 3.23점, 학습계획 평균 3.22점으로 본 연구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KEDI[2]의 연구 대상자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대학생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는 학습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높으나, 계획적으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더불어 수행해야 할 직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9],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1학년 때부터 필요하며, 특히 학습 계획에 따라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교우관계, 전공만족도, 이론만족도, 실습만족도, 실습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전공만족도, 이론 만족도, 실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wak[6] 등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Yang과 Sim[16]의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이에 따라서 간호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학생활의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간의 상관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im과 Oh[17]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공 선택은 .15점만큼 증가하고 전공만족도는 .08점, 이론만족도는 .13점, 실습만족도는 .16점만큼 증가함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전공선택, 전공만족도, 이론만족도, 실습만족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전공선택, 전공만족도, 이론만족도, 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방면적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생애능력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의 개발과 학년별로 단계적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은 3.40점이었고,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0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23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성별,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교우관계와 실습참여 태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전공만족도, 이론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이에는 매우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의사소통능력($r=.47, p<.001$)과 문제해결능력($r=.7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선택 동기($\beta=.15, p=.017$)이고, 이 변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주체는 대상자 중심으로 의료현장에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 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분석함으로써 대상자의 수준을 확인하여, 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문적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는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전체결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전체 학년 및 다양한 지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Chang K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5;6(1):185-196.
 2. Lee SJ, Chang YK, Lee HN, Park KY.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 2003 October. Report No.: RR 2003-15-3.
 3. Patterson C, Crooks D, Lunyk-Child O. A new perspective on competencies for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2;41(1):25-31.
 4. Lee OS, Gu MO.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2013;14(6):2749-2759.
 5. Kim SH, Lee SH.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5; 27(1):63-72.
 6. Kwak KH, Park SO, Oh SM, Seo IS, Lee JR, Park SJ, et al.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8;2(3):11-21.
 7. Kim JH, Kwon KJ.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4):295-307.
 8. Knowles, M, 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 and teacher. 1975. NY: Association Press.
- Lee SJ, Chang YK, Lee HN, Park KY.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 2003 October. Report No.: RR 2003-15-3.

9. Yang SH, Ha EH, Lee OC, Sim IO, Park YM, Nam HN, Kim JS. Academic achievement, self-directed learning,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ording to learning styl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2; 19(3):334-342.
 10. Kim JY, Heo NR, Hye J, Jung DK. Effects of simulation education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ttitude about the elderly for nursing students: a learning approach based on an elderly-with-cognition-disorder scenario.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1):54-64.
 11. Jeong GS, Kim KA, Seong JA.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3): 413-422.
 12. Ha JY. Learning style, learning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355-364.
 13. Lee MJ.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y and clinical[master's thesis]. Gusan: Gusan National University; 2018. p.1-63.
 14.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 380-408.
 15.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16. Yang SH, Sim IO.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reativity, self efficacy and nursing process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5):612-622.
 17. Sim MJ, Oh HS.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12(6):328-337.
-